



성큼 다가온 추석... “꼼꼼히 준비하세요”

4인 차례상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6만7000원 저렴 듣기 싫은 명절 잔소리 1위는 ‘취업과 연봉’ 관련 질문 추석 전후 벌초·성묘 시 ‘벌 쏘임’ 사고 각별히 주의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만에 만날 가족과의 만남이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고 있다. 이번 주 휴플러스는 추석을 앞두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봤다.

▶추석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9만원 대형마트 36만원=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6만7000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37곳의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해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이 29만5668원, 대형마트는 36만3085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차례상 비용인 전통시장 26만7762원에서 10.4%, 대형마트는 35만3685원에서 2.7% 각각 상승한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 47.7%, 수산물 24.4%, 육류 23.1%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 우위를 보였다. 또 27개 전체 조사품목 중 18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5일

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12일까지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할인 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 품목은 배추·무·사과·배·양파 등 농산물 7종과 축산물 4종, 밤·대추 등 임산물 3종, 명태·고등어·갈치·문어 등 수산물 15종 등이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13개 오프라인 업체와 에스에스지닷컴(SSG.com), 쿠팡,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25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이 참여한다.

▶가족 모이는 즐거운 명절... ‘잔소리’ 금지=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반갑지만 잔소리가 이어진다면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가 성인남녀 4747명을 대상으로 ‘이번 추석 연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와 50대가 꼽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 1위는 취업·연봉 관련 질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취업과 연봉 관련 질문을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로 꼽았고, 50대 남성 중엔 53%가 같은 항목을 선택했다.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전체 1위는 교제·결혼 관련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32%인 1508명이 교제·결혼 관련 질문이 가장 불편하다고 답했

며, 다이어트나 몸 관리 25%, 자녀계획 21% 등의 순으로 듣기 싫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교제·결혼 43%, 취업·연봉 24%, 다이어트·몸 관리 14% 등의 순으로 듣기 싫은 잔소리라 답했고, 여성은 다이어트나 몸 관리 30%, 교제·결혼 26%, 자녀계획 24% 등의 순으로 듣기 불편한 주제라고 말했다.

▶벌초·성묘 갈 때는 ‘벌 쏘임’ 주의=추석 전후로 벌초와 성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벌 쏘임 사고는 1만5743건 발생했으며, 27명이 사망했다. 특히 7월부터 추석 전까지 벌 쏘임 사고 발생 평균 건수는 5248건으로 76.8%를 차지했다.

벌초나 성묘 중에 벌에 쏘이게 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피부에 벌침이 박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부에 박힌 침이 보인다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와 평행하게 긁어 제거하는 것이 좋다. 손가락이나 핀셋 등으로 침의 끝부분을 잡아 제거할 경우 벌침에 남은 독이 몸으로 들어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침을 제거한 뒤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고 얼음주머니 등을 이용해 냉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만약 벌에 쏘인 뒤 몸이 심하게 붓거나 가려움, 구토, 호흡 곤란, 경련 등의 반응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벌초나 성묘 시에는 피부를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입고, 벌을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이 나는 화장품이나 향수는 피하는 것이 좋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영화觀

원하고 원망하죠

올해 24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발견 섹션 대상의 주인공은 김세인 감독의 장편 데뷔작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을 비롯 5관왕 수상, 무주산골영화제 뉴비전상, 서울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에 이은 수상 행보다.

모녀 관계의 정면과 이면을 거침없이 그려낸 이 작품은 올해 하반기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세상 누구보다 가깝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밀한 관계. 엄마와 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놀라운 점은 그 모든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모녀 관계는 때론 이 작품이 공포 영화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섬뜩하고 강렬하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화해로 이르는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결의 모녀 이야기이다. ‘같은 속옷을 입고 있는 두 여자’의 엄마 수경과 딸 이정은 함께 살고 있고 속옷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사이가 좋지 않다. 수경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혈질에 매사 급한 성격이고 이정은 수경과 다르게 말수가 적고 행동이 느리다. 둘은 모녀 관계이지만 닮은 데가 없어 보인다. 어느 날 수경의 차가 급발진해 이정을 칠 뻔한 사고가 생기고 이정은 엄마 수경이 고의로 자신을 해하려 했다고 확신한다. 수경의 다급한 성격과 이정의 느릿한 행동이 어긋나 이 사고를 만들어 낸 것일까. 아니면 정말 이정의 생각처럼 수경의 의도된 가해였을까. 모녀는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다.

엄마와 딸 또한 타인이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는 모녀 관계를 예민하게 들여다보며 사실은 각자인 타인들의 삶을 그려낸다. 너무도 다른 너와 나의 충돌이, 고통이 사실은 당



영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그렇기에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이 지독한 관찰기는 관객의 예상과는 다른 결말로 이어지지만 끝내 깊은 공감을 남긴다. 김세인 감독은 특히 개성 넘치는 엄마 수경의 캐릭터를 통해 모녀 관계의 환상성을 해부한다. 엄마라는 역할과 중년 여성의 욕망이 혼재된 수경의 캐릭터는 배우 양말복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마치 배우 전도연과 신신애를 동시에 떠오르게 만드는 그의 열연은 이 영화의 발화점인 동시에 구심점이기도 하다. 극 중 엄마 수경이 빨간 슬립만을 걸치고 거리를 걷는 장면은 너무 또렷하게 인상에 남아 지워지지 않을 정도다. 누군가의 엄마인 동시에 연인으로 친구로 살아가는 일의 고단함 그 고단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욕망의 감정이 배우 양말복의 걸음에 새겨져 있다고 느껴진 장면이다.

나와 닮은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아왔지만 각자로 존재한다는 것.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영화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취 득

경기대 관광학박사 학위

심 지 민

경기대 관광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사촌 일동